

살아 움직이는 소장품 즐기며 숲에 안기다

실감 콘텐츠 공모 지원 사업
공공수장고 다목적실 활용
천장 매핑·예술성 더해 차별
“미디어 아트 창작 활성화로”



공공수장고 다목적실에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인 김시연·박서은의 ‘숲이라는 이름에 묻힌 나무’가 상영되고 있다. 전선희기자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 제주의 숲이 들어왔다. 전시장 바닥에서 지붕까지 높이 솟은 사려니숲 나무들이 방문객들을 에워쌌다. 관람객들은 나무 사이를 거니는 사색가가 되어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지난 25일 제주도 환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다목적실, 한때 소장품 전시가 열렸으나 그 후 오랫동안 비어 있던 이곳이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제주도립 제주현대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지원 사업으로 공공수장고에서 몰입형 실감 콘텐츠 전시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에서 유일하게 공모 사업에 선정된 제주현대미술관은 100여

점의 소장품과 입주 작가의 신작으로 기존 미디어 아트 전시장과 차별화를 꾀했다. 현대미술을 기반으로 예술성을 강화해 작가들의 창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유희공간이던 165㎡(50평) 규모의 공공수장고 다목적실 높이가 최대 8m에 달하는 이점

을 살려 건물 천장까지 매핑하는 기술로 작품 속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도를 높였다.

현재 이곳은 세 구역으로 나뉘어 관람객들이 여러 방식으로 콘텐츠를 즐기도록 만들었다. 1구역에서는 제주현대미술관 소장품이 살아 움직이는 ‘살

아있는 작품’(8분),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인 김시연·박서은 작가가 사려니숲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숲이라는 이름에 묻힌 나무’(12분)가 상영된다. 2구역에는 강운의 ‘순수형태-바람, 놀다 3’을 재해석해 연출한 ‘바람, 놀다’가 설치됐다. 3구역엔 일종의 포토존인 ‘미러룸’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앞으로 미디어 작품 교체 시 공모 등을 통해 국내외 작가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평면, 입체 등 소장품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작품’ 전과 연계해 선 제주현대미술관 내 소장품 상설전시실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은 “공공 미술관의 성격에 맞게 예술성에 기반한 몰입형 실감 콘텐츠로 특화를 시도했다”며 “제주는 물론 국내 작가들이 미디어 아트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장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공수장고 전시는 시범 운영 기간인 6월 29~7월 5일에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정식 운영은 7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파도 기획 공연 뎀플릿에 실린 ‘인간연습’ 이미지.

‘젊은 시선’ 무용단 존재감 높다

도립무용단 단원 창작
‘인간연습’ 등 4편 공연
관객 개발 등 긍정 신호

제주도립민속예술단으로 출발한 도립무용단은 지난 30년 전통춤, 민속춤 기반으로 창작 무대를 가져왔다. 이번 무대는 단원들이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떨쳐내고 자신들의 관심사를 몸의 언어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점프 슈트 등 도립무용단 공연에서 만나기 어려운 의상이 나왔고 팝, 재즈풍에 등장하는 무대막에 파도가 일렁였고, 그 파도는 젊은 무용인들의 열정과 만나 객석으로 밀려들었다.

지난 26일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립무용단 단원들이 안무한 4편의 창작 작품으로 기획 공연 ‘파도’ 펼쳐졌다.

김혜령은 ‘헝거’를 통해 관계 맺음 속 상처를 주고 받는 우리의 모습을 춤으로 그렸다. 이승현의 ‘인간연습’은 미디어의 범람 속에 혐오, 차별, 왜곡된 정보로 인로가 막히는 현실을 짚었다. 4·3 증언자의 목소리로 시작된 김재인의 ‘행이자랑’은 처연한 독무로 그날의 원혼을 달랬다. 현해연의 ‘심혼’S’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활기찬 춤에 담았다.

도립무용단은 지역 대학 내 무용학과가 없는 현실에서 춤 저변 확대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공연은 작품 창작, 관객 개발 등 ‘젊은 시선’으로 도립무용단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파도’ 기획 공연은 한 차례 더 있다. 8월 21일 오후 5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또 다른 4편을 선보인다. 공연 작품은 강현정의 ‘백(百), 백(白)’, 김화영의 ‘떨어질 락(落)’, 남기홍의 ‘뜬-바람길’, 고법성의 ‘아기엄마의 기억’이다. 전선희기자

문예재단 공무원 파견 논란 재점화

장기 공석인 경영기획실장
재단서 제주도에 파견 요청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25일 제주도에 공석 상태인 경영기획실장에 대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조직 개편 당시 공무원 파견을 놓고 재단 직원들이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재단은 작년 조직 개편 때 경영기획실장직을 새로 뒀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빈 자리다. 이에 최근 재단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영기획실장을 개방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7월 제주도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면서 내부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재단 근로자위원회는 ‘독단 졸속 인사 이승택 이사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분부를 폐지하고 신실한 경영기획실장을 공석으로 둔 것에 대해 이

사장은 일언반구 합리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세간에 공무원 파견설이 파다한 점에 비추어 제주도 인사시 공무원 파견받겠다는 심산으로 공석을 만들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며 “설립 20년을 맞는 광역문화재단에 공무원 파견이 왜 필요한가. 더욱이 재단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경영기획부서의 장을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타당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장기간 비어 있어서 재단과는 결원을 보충할 파견이 필요하다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서 “조직 관리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 파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재단 설립과 육성 조례엔 “필요한 때에는 제주도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폐지된 재단 사무처장의 경우 2017년 8월까지 파견 공무원을 앉혔다. 전선희기자

‘작품 기증=미술관’ 공식에 미술계 우려

제주도 “중광 작품 기증 접수”
수증 심의 전 공간 조성 밝혀

“미술품을 기증하면 너나없이 미술관을 만들어야 하나?” 제주도가 중광(1935-2002) 스님의 작품을 기증받기로 했고 일부에서 “중광미술관” 건립 추진 보도가 나오자 지역 미술계를 중심으로 그 같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출신 중광 스님 작품 기증이 접수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중광 스님을 “한국의 피카소”로 소개하며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부지에 별도 공간을 조성해 전시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렸다. 제주도내 따르면 이번이 가나아트 이호재 회장이 기증 의사를 밝힌 중광 스님의 작품은 회화·도자 등 400여 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제주도가 전시 공간까지 언급한 점을 두고 부적

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역시 이를 근거로 미술관 관계자 등 12명으로 ‘중광작품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28일 심의에 나선다.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작품을 기증 받고 작가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꼼꼼히 살펴야 하는 문제인데 벌써부터 미술관, 전시관 이야기가 들리더라”며 “제주와의 연고를 떠나 신중히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평가하겠지만, 중광 스님이 제주 출신이고 내년이면 20주기가 된다. 그동안의 전시 경력을 보면 그만큼 작품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기증 작품을 전시할 공간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게 기증자의 뜻인데, 앞으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용역과 연계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작가가 전하는 작품 세계 도립미술관 온라인 강좌

제주도립미술관이 ‘예술가의 사물을 표현하는 형식 관찰기’ 기획전과 연계해 온라인 시민 교양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7월 21일 미술이론가인 조주연씨의 ‘포스트모더니티 사회 현상과 현대 예술가의 시선’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전에 참여한 임창민의 ‘경계를 깨는 두려움을 넘다’, 고영훈

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그리다’, 구본창의 ‘백자의 순수한 모습을 포착하다’, 김선형의 ‘찰나의 색, 경계의 색 불루’, 문봉선의 ‘대나무의 진경을 꿈꾸다’, 변순철의 ‘기술과 예술이 만났을 때’, 안창홍의 ‘모든 체제와 제도에 반대한다’ 주제 강의가 차례로 마련돼 작업 공간과 더불어 전시장을 배경으로 작품 세계를 전하게 된다.

수강생 모집은 이달 28일부터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모집 인원은 총 200명이다. 수강료 무료. 문의 710-4276. 전선희기자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